

5/27/18

설교 제목: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호세아 2 장 14-23

- (호 2:14)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 (호 2:15)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절관주**
겔 28:25, 겔 28:26
- (호 2:1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 (호 2:17)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 (호 2:18)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 (호 2:19) 내가 네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 들며
- (호 2:20)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 (호 2:2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절관주** 사 55:10, 슥 8:12
- (호 2:22)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 (호 2:23)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절관주** 슥 10:9

호세아 2 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전반부 2-13 절은 하나님을 배신한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와 심판을 말하고 후반부인 본문 14-23 절은 징계와 심판 후의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을 배신하고 바알을 따라간 이스라엘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며 분노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한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은 적신으로 태어나서 아무도 돌보아 주는 이없이 피투성이가 되어 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던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온갖 금 은 보화로 장식시켜 황후 자리까지 오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깨닫고 고맙게 생각하기는 커녕 오히려 오늘의 자신을 만들어준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공을 모두 바알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알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금 은 보화까지 가지고 바알을 따라 갔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창기보다 못하다고 지적하십니다.

창기는 돈을 받고 몸을 팔지만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알에게 갖다 바쳐가며 바람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을 벌거벗겨 내쳐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신에 대한 복수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지요.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당신 품으로 다시 돌아 오게 만들어서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의 큰 아들 Jonathan 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였습니다.

등교 시간이 가까왔는데 제가 전날 내 준 숙제를 해 놓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단을 치며 그렇게 할려면 학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그 말을 곧이 듣고 학교 갈 준비를 하다가 중단하는 거예요.

엄마가 화가 나서 학교 가지 말라고 하니 학교를 안 가고 집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엄마인 제가 얼마나 답답하고 기가 막혔겠어요?

그날 아이는 물론이거니와 저까지도 꿈쩍없이 집에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엄마의 마음을 읽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학교를 가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한 것인데 이 아이가 말귀를 못알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는 길 곧 바알을 따라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므로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 찾지 못하게 해서라도 막으시겠다고 하십니다.

또 먹고 마시는 것은 물론이요 그들이 이제껏 누려왔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려 그들이 태어나던 때와 같이 적신으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하심에서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비로소 전 남편이 나았다고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징벌만 있고 회복이 없다면 그것은 복수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배신에 대해 징계와 심판으로 정죄하는데 그치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 용서와 사랑을 보여 주십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는지를 보여 줍니다.

(호 2:14)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께서서는 징계받아 모든 것을 빼앗기고 벌거벗기운 이스라엘을 거친 들, 곧 광야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거친 들, 광야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거친들, 광야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처음 머물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친 들, 광야로 데리고 간다는 것은 이스라엘과의 만남을 원점으로 돌리시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에서 단 둘이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로 위로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말로 위로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에레미야 31 장 31-34 에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렘 31:31)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렘 31:32)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렘 31:33)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거친 들로 데리고 나와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 언약은 과거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은 모세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후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다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새겨 주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출 19:3)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출 19:4)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 19:5)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출 19: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만해지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법을 어겨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이번에 새 언약을 맺으실 때는 당신의 법을 돌판에 새기지 아니하고 아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새겨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새 언약을 언급하셨습니다.

(눅 22:20)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용서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호 2:15)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골 골짜기는 여호수아 때에 아간이 여리고 성 전투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가족과 그의 모든
재물과 함께 매장당한 골짜기입니다.

여리고 성 전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치른 첫 전투였습니다.

보통 전투에 승리를 하면 전리품을 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리고 성 전투에서는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치른 첫 전투였으며 오로지
하나님 당신이 홀로 싸우셔서 승리한 전투였기 때문에 당신 홀로 영광받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데 이스라엘이 한 것이라곤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을
옛새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이레 째 되는 날은 일곱 바퀴를 돌았으며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함성을 지른 것이 다 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몰래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시날 산의 외투 한 벌과 은 이백 세겔과 금 오십 세겔을 몰래 취하여 자신의 장막 속에 감추었던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다음 전투지인 아가 성에서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여리고 성에 비해 아주 조그마한 아가 성이기에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참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의 원인을 찾기 위해 제비를 뽑았고 결국 아간의 행적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고 죽임을 당했으며 그의 전 재산과 함께 불에
태워졌습니다.

이런 유래를 가지고 있는 아골 골짜기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을 배신하여 소망이 끊긴 채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과 포도원을 주겠다고 위로하시며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호 2:1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호 2:17)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은 음란으로 인해 징계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 소망이 끊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남편이 되어주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그 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날,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되는 날입니다.

그 날에 이스라엘은 다시는 하나님을 '내 바알'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내 남편'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원래 바알의 뜻은 '내 주인'을 의미하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내 바알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우상 바알을 따랐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그 우상의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부르게 하지 않고 내 남편이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호 2:18)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호 2:19) 내가 네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 들며

(호 2:20)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해로운 짐승과 새와 곤충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대적의 활과 칼을 꺾어버림으로 전쟁을 없애고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연의 재해와 전쟁을 다 제하여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되어 속속들이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또 진실함으로 결혼 생활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호 2:2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호 2:22)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르엘에 응답하리라

(호 2:23)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회복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 막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이스르엘, 하나님이 흘린 자에게 응답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하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히 내려 황폐한 땅을 기름지게 할 것이고 그러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히 생산될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에서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고, 로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자에서 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타락하고 음란한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죽어 마땅한 죄인인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알게 되고 주는 진정 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가신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입니다.

아골 골짜기 사망의 문을 소망의 문으로 만들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 가신 날입니다.

그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하며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우리는 음란한 신부였습니다.

그러기에 징계받아 죽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음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속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긍휼과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이제야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순결하고 순전하며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가 되겠다고 결단합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순결하고 순전하며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셨으면 합니다.